

대표작 '김치', 새 장르 '영화연극' 으로

2021 새로운 출발

<3>창단 40년 나주극단 예인방

인구 11만의 작은 도시에서 40년간 꾸준히 연극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건 만만찮은 일이다. 올해 창단 40주년을 맞은 나주극단 '예인방'의 행보는 그래서 의미가 있다.

'연극은 사람이고, 사람은 연극이다'를 이념으로 다양한 작품을 통해 관객과 만나고 있는 극단 예인방은 연극배우 김진호(60) 대표가 1981년 창단했다. 지금까지 350차례 공연을 진행한 예인방은 지난 2015년 지역극단으로는 처음으로 제8회 대한민국연극대상 작품상(엄마의 강)을 수상했으며, 지난해에도 '뭇생긴 당신'으로 다시 베스트 작품상을 받았다. 또 김 대표의 부인이자 나주연극협회 회장인 임은희씨는 '뭇생긴 당신'에서 엄마 역으로 '자랑스러운 연극인상'을 수상, 겹경사를 맞기도 했다. 김 대표도 지난 2014년 같은 상을 받아 부부 수상이라는 영광스러운 기록도 거머쥐었다.

예인방의 작품에 주로 출연하는 수석 단원들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이다. 김호영·김영·홍순환 등 TV 프로그램을 통해 친숙한 이들은 공연을 위해서 나주에 머물며 연습을 진행,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최근 예인방(나주시 금계동) 사무실에서 김 대표를 만나 예인방의 역사와, 활동, 작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연극인이자 제작자인 그는 드라마 '주몽', '기황후', '옥중화' 등에 이어 현재 '철인왕후'에 출연 중이다.

김 대표는 "연극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이라며 "창단 40주년"에 그 어떠한 당위성이나 가치를 입히기 보다는 그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4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제가 연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의 도움 덕분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장 든든한 후원자셨죠. 형도, 동생도 모두 배우, 스태프 등으로 항상 작품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해오다 보니 연극이 어느 순간 종교이자 삶이 됐어요. 작품을 통해 늘 꿈꿀 수 있어서 좋았지만 40년의 시간만큼 증압감도 큼니다.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할지 고민이 태산같아요." 그가 지금껏 무대에 올려온 작품들에는 각각 사연이 있다. 그런 탓에 김 대표에게는 어느 것 하나 애뜻하지 않은 작품이 없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



나주극단 예인방이 올해 창단 40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대한민국연극대상에서 작품상을 수상한 '뭇생긴 당신' 홍보 사진.

연극배우 김진호씨, 1981년 창단 '엄마의 강' 등 350차례 공연 '뭇생긴 당신' 연극대상 베스트 작품상 학교밖 청소년 위한 '연극학교' 운영

요. 제가 해온 작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가장 인상깊은 작품 하나를 꼽는다면 '김치'가 아닐까 싶어요."

예인방의 대표작 중 하나인 '김치'는 사고로 남편과 아들을 잃은 여주인공이 김치죽을 끓이며 자식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를 지켜보는 한 남자의 뭉툭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지역연극단체 최초로 2013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했으며, 5일 연속 매진을 기록한 작품이다.

"우동 한 그릇"이라는 일본작품을 본 적이 있어요. 일본 대표 음식 '우동'을 소재로 한 작품인데 저에게는 큰 감동을 주지 못했죠. 이후 우리나라 대표 음식인 '김치'를 소재로 한 '식객-김치전쟁'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김치 재료에 포커스를 맞춰 풀어낸 작품인데 저는 좀 다른 작품을 쓰고 싶더라고요. 예인방의 '김치'는 엄마를 느낄 수 있는 음식이자 한국어 정서를 담은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치'는 올해 '영화연극'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다시 태어날 예정이다. '영화연극'은 연극의 요소에 복제예술을 특색으로 하는 영화적 기술을 가미한 새로운 장르다. 미술적 느낌이 가득한 수채화 같은 무대를 배경으로 연극적 공간의 특색을 담아낼 예정이다.

"단순히 '영화연극'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선보이기 보다는 이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작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작품을 만들어서 무대에 올리는 것은 지난 세대가 해왔던 연극이에요. 지금은 여러 고민을 통해 연극계의 10년, 100년을 계획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울러 올해는 그가 쓴 신작 '화양연화'를 선보인다. 죽어가는 여류화가와 그를 보살피는 남편의 사랑이야기로 작품이 완성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동시에 무대에 올리는 꿈을 꾸고 있다.

예인방은 작품활동 외에도 '청소년 연극교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을 진행하는 청소년이나 카데미연극교육원을 운영중이다. 올해는 우리나라 청소년 가운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밖에서 떠돌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멘토링 연극학교'에 더욱 중점을 둘 계획이다.

"예인방 40주년을 맞아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환원을 위해 멘토링 연극학교에 더욱 힘쓰기로 했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동시에 예술꿈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전반에서 활동중인 멘토를 아이들과 연결해 아이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생각해요. 아이들이 꼭 연극배우가 되기 보다는 연극적 가치를 전달해 조금이라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한편, 예인방은 '시집가는 날',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친정엄마', '모정의 세월', '엄마의 강', '아버지와 나와 흥매와' 등의 공연을 선보였으며, 10여년 전부터는 '사람 사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역을 넘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중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창학 71주년' 우암문화재단, 책 3권 발간

창학 71주년을 맞는 우암학원(설립자 학원장 조용기)이 설립한 우암문화재단이 모두 세 권의 책을 발간했다.

우암 조용기 선생이 쓴 '아침단상365', 우리나라 지성계를 대표하는 이들이 저자로 참여한 '희망은 고통과 함께 온다', '하나님 사랑과 도의, 그 길을 묻다'가 그것.

'아침단상365'는 '먼저 살아온 길 95년, 가르쳐온 75년의 노 스승이 전하는 삶의 지혜'라는 부제가 붙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생을 살아가고 싶은 우암 선생의 바람을 담았다.

저자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날, 나의 젊음을 어디에 쏟을 것인지 고민했다 한다. 어렵지 않게 찾은 답은 바로 이것. "젊은이야 팔을 걷고 일어나거라. 끊는 피 뛰는 가슴 거센 청춘을 무너지고 짓밟힌 내 고장을 위해 한 톨의 밀알이 되거라."

그렇게 시작된 한톨의 밀알이 '교육의 밭'에 떨어졌다. 밀알이 떨어져 씨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처럼, 저자는 미래라는 열매를 위해 스스로를 가혹하게 단련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일을 상기하고 오늘 일을 다짐하며 실천에 옮긴다.

책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꼬박 1년간의 단상이 담겨 있다. 오늘 하루가 바로 나의 인생이라는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우암 선생은 매일매일 성찰과 다짐 속에 하루를 시작하고 실행한다.

"잠된 자유인은 잠된 자기 통제능

력이 있어 자기 통제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사람에겐 만 인종되는 것이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그 누구에게도 해를 주지 않는 행동인가를 잘보고 오늘도 자유로운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 (12월 31일)

다른 책 '희망은 고통과 함께 온다'는 우암 선생을 비롯해 황승룡 우암학원 이사장, 우동기 전 전남대 총장, 손병두 삼성경제연구소 상임고문, 성진기 전남대 명예교수 등 12명이 저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고난과 역경 속의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듯, 희망 또한 그렇게 고통과 함께 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는 열정으로 희망을 향해 나아가라"고 조언한다.

또 다른 책 '하나님 사랑과 도의, 그 길을 묻다'는 문헌상 조선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신경희 남부대 교수, 정재현 연세대 교수, 이인재 서울교육대 교수 등 모두 12명 석학의 글을 모았다. 이들 저자들은 '도의가 바로서야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가 발전한다'고 역설한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지고지순의 양심을 주셨다.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직하고 바른 삶의 길을 찾자"는 주제를 전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차분한 전통 문양 조명 '빛으로'

가구 디자이너 이진욱 초대전, 23일까지 산수미술관

최근 건축과 실내 디자인계에서는 빛이 어우러진 공간 연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조명 인테리어도 눈길을 끌고 있다. 코로나 시대, 따뜻한 빛의 이미지는 사람들에게 온기를 전하며 작은 위로를 건네기도 한다.

가구 디자이너 이진욱 작가 초대전이 오는 23일까지 광주 산수미술관(관장 장민한)에서 열린다.

'빛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이 작가는 LED조명 기구와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목재함을 접목한 실내 조명 소품 10점을 전시한다.

최근 LED 기술이 발달하면서 조명은 더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분위기에 어울리는 미적 요소도 강조되는 추세다. 특히 실내 공간의 용도와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작가는 전통 가구 디자인과 최신의 조명기구를



'빛으로'

결합, 기존의 대량생산품과는 차별화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으며 그의 작품은 조선시대 서체처럼 차분하면서도 돋보이는 실내 분위기를 연출한다.

현재 조선대 미술체육대학 가구도자디자인 전공 교수로 재임중인 이 작가는 대한민국 디자인문화대전 초대 작가를 역임했으며 지금까지 15회 가구 디자인 개인전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Belton, CES, BIG INNOVATION AWARDS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